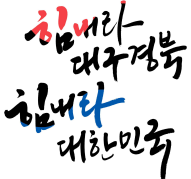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2020.3.10.(화) 중간	배포	2020.3.9.(월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장 정 선 인(02-2100-2841)	<b>담 당 자</b>	조운수 사무관(02-2100-2859)		
	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김 용 태(02-3145-7120)		송경용 팀 장(02-3145-7130)		
	핀테크지원센터 사무국장 황 인 덕(070-4481-9002)		김세진 팀 장(070-8873-9005) 성백규 과 장(070-8872-9004)		

## 제 목 :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중단없이 계속 운영됩니다.

☒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\*을 마련·추진하겠습니다.

\*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 / ②금융당국·혁신금융사업자 핫라인 구축 / ③혁신금융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/ ④컨설팅 체계의 비대면 병행

###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겠습니다.

☐ **(현황)** '19.4.1.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총 8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.

○ 한편, 금융혁신지원 특별법(§14)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\*으로 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

\*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, 혁신위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60일 연장 가능

○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당초 2020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3.2.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.

➡ **(운영방안)**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\*으로 개최\*\*하여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.

\*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일정

혁신위 소위원회(3.5.~10.) → 혁신위(3.12.~16.) → 금융위(3.18.)

\*\*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(§7)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

○ 대면심사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전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하여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·소관과·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한편,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## 2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.

□ **(현황)**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한 키맨(Keyman)의 연락망(성명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을 관리중에 있습니다.

○ 다만, 혁신금융사업자의 금융당국 소통채널이 다양\*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\* 금융위 샌드박스팀·각과, 금감원 핀테크혁신실·각 감독국 등

➡ **(운영방안)**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\*을 구축하여 안내하고,

\* ①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 (이메일 : fintech@fss.or.kr, 전화번호 : 02-3145-7131)

② 필요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(예 : 카카오톡 단톡방) 활용

-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\*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\*\*해 나가겠습니다.

\* 3월에 서비스 출시예정인 기업 6개사 및 경과보고서 제출 예정인 9개사 확인 결과, 출시 및 제출에 애로는 없는 상황

\*\* (예)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공문서 발신(경과보고서 등)이 어려운 경우,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 등

### 3 기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**(현황)**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\* 경과보고서 접수, 책임보험 가입현황 관리, 1:1 멘토링 실시, 실태점검 및 검사 등

- 다만, 핀테크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,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, 사업장 폐쇄, 전산 장애 등 발생시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- ➔ **(운영방안)**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\*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\*\*하겠습니다.

\* (예시)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, 상황 전파·보고 프로세스, 위기대응 매뉴얼 등

\*\*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(BCP) 사례 안내  
→ 혁신금융사업자 BCP마련 지원

- 특히,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상기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혁신금융사업자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→ 동 매뉴얼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(3월 중 시행)

□ **(현황)**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기업 등을 위한 소통 채널\*이 주로 대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\* **(현장컨설팅)** 핀테크지원센터·금감원은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·서울 창업허브 등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및 법률자문 실시

**(찾아가는 샌드박스)** 금융위·금감원·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상주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샌드박스 제도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

○ 그러나, **코로나19 확산방지** 대책으로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창업허브(마포소재)가 **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(2.26.~3.23.)** 서울창업허브에서의 원활한 대면 컨설팅\*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.

\* 핀테크지원센터 및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컨설팅·법률자문 등

➔ **(운영방안)**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**유선·이메일\***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, 핀테크지원센터 **홈페이지의 Q&A\*\***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.

\* **(현장컨설팅)** 컨설팅 인력의 유선번호 및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게재

- **유선번호** : (핀테크지원센터) 070-8873-9005, 070-8872-9004  
(금감원) 02-3145-7130
- **이메일** : confirm@fintechcenter.or.kr

**(찾아가는 샌드박스)** 월2회 핀테크랩(Lab)별 이메일 의견수렴

- \*\* ① fintechcenter.or.kr > 금융규제 샌드박스 > Q&A > 상담신청서 작성  
② Q&A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팝업창을 추가하여 홍보 강화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